

생명존중 시리즈(1) 태아도 생명이다



김승욱 (발행인)

(사)기독교세계관 학술 동역회 공동회장.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UNDP국제 전문가와 중앙대 동북아 연구소장,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3년째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복지가 미비한 점도 원인이고 생명경시 풍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안락사 허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2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에 이어 캐나다도 허용했습니다.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이제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교문화에서는 대를 잇고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나만 즐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소중함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되고 동성결혼까지 허락되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가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보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낙태, 자살, 안락사 등 생명존중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6월호에서는 낙태 문제를 다룹니다.

지난 5월 24일에 낙태 여성과 이를 도와준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 위

해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공개변론회를 열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재판관 4대4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공개변론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시민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측에서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에서는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 '비웨이브'(BWAVE · BlackWave)도 '아기자판기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나는 아기자판기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때, 이번 <월드뷰> 6월호 표지인물로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의 김현철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김현철 목사는 미국 유학시절에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1994년에 23개 단체가 연합한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5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늦둥이를 임신하여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산을 결심해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낙태반대운동을 위해서 태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미리 그를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총신 신대원의 이상원 교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터뷰라기 보다는 대담에 가깝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며 의사에게 낙태 권유를 받은 제자 전도사의 상담을 받고 성급한 낙태 결정 대신 기다림과 기도를 권했고 결국 예쁘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상원 교수의 간증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하셨을 때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외과수술을 위해서 마취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서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갈 것을 염려해 낙태를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맡았던 이모부께서 아들 하나로 부족하니 수술을 미루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부친은 동생을 보면 간혹 가슴이 찡해진다 하고 하시며 동생에게 이모부에게 잘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특집 주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7편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먼저 손봉호 본보 대표주장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신학자로부터 신학적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원 교수는 생명경시 가치관과 생명중시 가치관을 대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생명경시 가치관으로 유물론과 이기심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중시 가치관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상, 그리고 이타주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은 성경이 태아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를 부여하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12개월 이전의 태아는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알고 돌보시고 끝까지 관계하신다고 했으므로 인공중절수술은 비성경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김현철 낙태연 회장이 낙태반대연합운동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는 진리와 견해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 아니냐는 다수결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견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낙태를 자유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불발되는 기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독자들에게 “소리 없는 자의 소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다음 칼럼은 낙태반대운동단체인 새생명사랑회 회장과 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발산중앙교회의 김길수 목사 글입니다. 그는 생명운동연합의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 낙태에 반

대하는 것이며,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영적 전쟁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웅변을 토합니다.

이어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와 변호사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먼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생명윤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진 원장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한국기독교사회 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생명윤리와 건전한 성윤리 확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점과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는 미국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태죄 위헌 심사에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